믿음의 누명을 벗겨라!

(마21:18-22)

18.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19. 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 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20.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누명을 벗겨라!>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누명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것이 누명인 이유는 믿음을 그렇게 이름 함으로써 끝없는 오해를 만들어내고, 기독교의 진리를 가리고, 구원의 길을 막기 때문에 그 누명은 굉장히 악랄하고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을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일치시켜서 생각할 때에 그것은 엄청난 누명이 됩니다.
누명이라는 것은 아주 악한 평판을 말합니다, 억울하고 악한 평판.
전혀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고, 시장하신 주님께서 그 열매를 찾다가 나무를 저주하

셔서 나무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나무가 받아들여서 나무가 곧바로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깜짝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무화과나무 사건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사실에 가까운 기록 같아요.
그런데 마태는 이 사건을 시기적으로도 임의대로 바꿨고 내용도 축소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마태의 초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21절과 22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내용에 마태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무화과나무가 저주받고 죽은 사건을 마가와는 다르게 그 사실 자체를 초점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는 마가복음을 다룰 때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바로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에 중점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을 확신으로 이해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누명입니다, 억울하고 악한 평판이에요.
믿음은 현실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현실감이다' '확신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명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 풍랑 만난 그 경험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고 나무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풍랑 속에 침몰하여 죽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

이 없었던 것이 믿음이 없다고 핀잔 받은 이유다, 그러므로 이 풍랑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곧 믿음이다'
이것은 기독교를 깡그리 부숴 뜨려놓은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위치에 서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일곱 배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구원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라는 단서를 왜 뒤에 갖다 붙입니까?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갖는 시점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구해주느냐, 안 구해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풀무불과 무관하게 이미 그들은 믿음의 상태에 있었고, 그 믿음의 상태에서 풀무불을 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구원해줄 거라는 확신이 아니라.
그런 확신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때 순교당한 모든 사람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가다 다시 풍랑이 일었을 때, 오순절 뒤의 일이라면, 그 풍랑 속에서 죽어도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믿음이 있어도 풍랑 속에서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일이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를 쓸 때 가정법 현재의 시제를 씁니다.
가정법 현재라는 것은 어느 한 동작을 일회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 믿음이 있다 없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아니라, 아예 마음이 머물고 지속적으로 노는 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의심치 않는다는 얘기는 시제 상으로 과거에 일회적으로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의심에서 빠져나와서 믿음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어떤 상태에 마음이 머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머물고 있다'는 말을 현실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서 믿음이 상태이고, 의심이 한번 빠져나온 일회적인 행동을 말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22절을 올바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는 이렇게 돼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믿고 구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이 말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만일 믿고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의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너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구하는 것이 '아, 이루어질 거야, 돈 많이 벌 수 있어,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돈 버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믿음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에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돈 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면 그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돈 번다는 일에 확신을 갖지 않아도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난 것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뜻이지, '돈 벌게 해주세요, 돈 벌 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감이에요.
현실감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현실과 실재와는 다릅니다,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게 현실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실재하지만 실재하는 모든 게 다 내 현실로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로 느껴짐을 말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도에 갠지스 강이 있다' 사실이고 실재입니다.
그러나 인도에 갠지스 강이 있다는 것이 나의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내가 지금 제2한강교를 건너고 있는 동안에 한강이 서울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면서 동시에 내 삶에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한강 위를 지나고 있으니까.
김태희 씨가 TV에 나옵니다, 예쁩니다.
김태희 씨가 이 세상에 예쁜 모습으로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실재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현실은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감과 실재의 차이가 뭡니까?
실재에 플러스 내 마음이 주어지는 것, 내 마음이 갈 때 그것이 현실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실재이고 아무리 사실이라도 마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거기에 갈 이유가 없으면 그것은 내 삶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 실재에 마음이 간 상태,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실재나 사실에 내 마음이 가서 그곳에서 마음이 놀고 있는 상태, 그곳에 머물고 있는 상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풍랑 만난 배 위에서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왜 예수님은 주무셨고, 왜 제자들은 난리를 치게 됩니까?
현실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실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현실감을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1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늘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입니다, 그 풍랑 만난 현장에 천국이 지금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겹쳐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도 천국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실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실재의 천국에 마음이 가서 그 천국에서 마음이 놀고 계셨고 그 천국이 주님의 첫 번째 현실이 되었고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몸으로 보고 느끼는 풍랑이 이는 그 바다가 그들에게 있어 마음이 들어가 있는 제1현실이 된 겁니다.

마음은 자기가 가있는 제1현실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하게 돼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천국이 제1현실감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풍랑 만난 사건은 제2현실이 돼버립니다.
제2현실은 제1현실에 마음이 가있기 때문에 언제나 제1현실에서 느끼는 마음으로 제2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제1현실이 천국이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느끼는 마음가짐으로 풍랑이라는 제2, 제3의 현실을 맞이하는 겁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제1현실이 풍랑이었기 때문에 천지의 주재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제2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1현실에서 요동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했다 그럴 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가서 놀고 있는 장소가 천국이라면 천국이 제1현실감이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제1현실이 될 때 경제위기라고 하는 제2의 현실은 천국에서 마음이 느끼는 상태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위기가 제1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경제적인 위기라고 하는 실재에 마음이 먼저 가버리게 되면 그 위기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찌하여 천국이라는 실재에 마음을 첫 번째로 두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있다면'이라는 이 말이 어떤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해요.
'왜 너희가 경제적인 위기라고 하는 이 상황에 마음을 먼저 주고 있고, 경제적인 위기도 실재고 천국도 실재인데, 왜 천국이라는 실재에 마음을 먼저 주고 있지 않느냐, 그게 왜 첫 번째 현실감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폭발에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이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기독교의 믿음에 대한 누명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갈 것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를 앞에 모셔놓고 '나는 당신이 내 아버지인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아버지 됨과 아들 됨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됨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가난한 처지에 있다면 '당신이 가난한 것을 확신합니까?'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에서 '갈 것'이라는 것은 이미 천국과 분리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아직 천국이 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미 내 마음이 천국에 앉히운 바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풍랑 만난 배 위에서 그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이 실재라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실재입니다.
보인다, 들린다는 실재와 가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실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로 실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재에 마음을 두고 지금 천국을 사는 것이지, 지금 천국이 내 현실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이미 하나님아버지의 품이 현실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풍랑이라고 하는 이 땅의 사실이 제2현실로 밀려나간 겁니다.
그리고 잠을 주무신 거지요.

그러므로 질문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천국이 현실입니까? 당신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는데 가긴 어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합니까?'라고 묻는 바보 같은 질문과 똑같다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천국 안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천국이라는 실재에서 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 번역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너희가 만약에 믿고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마음이 천국이라는 실재에 가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자식의 문제, 거기에 마음이 가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만약에 천국에 가 있다면, 그 천국에서 마음이 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생각이 나서 무엇을 구하게 될 때에 기도하게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와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제1현실이 이 땅에 있는 처지에서 우리 마음이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또 오순절 이후의 사도들께서 그 마음이 천국이라는 실재에 가서 천국이 제1현실이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를 구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구한 사람은.
'내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형통과 성취의 경주와 몸값 올리기 경주에서 1등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천국에서 놀고 있을 때,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천국에 올라가 놀고 있는 그 상태가 믿음이거든요, 노는 물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천국에서 천국을 느끼고 있는 자가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좋아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산을 바다에 빠뜨린다는 얘기도 내가 가는 길을 막는다고 화가 나서 바다에 빠뜨린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마음이 천국에 올라간 자들이 하나님이 느끼실 때 '이 산과 같은 문제가 없어져야 되겠다'고 느껴서 그 하늘에 올라가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실 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한다'는 이 말은 나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믿음의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에 하늘을 즐기고 하늘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 이 땅에서 무엇인가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 나면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뜻이죠.
믿음을 확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누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은 사실에 마음을 줘서 머물고 있는 현실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더 이상 믿음에 누명을 씌워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라는 실재에 가서 머묾을 통하여 천국이 나의 현실이 될 수 있기 위해 오늘도 내 마음이 자꾸 보이고 들리는 세상의 대상에 대해 가는 것을 십자가를 기억하며 죽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그리하여 내 마음이 온전히 하늘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천국이 나의 제1현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제1현실 속에 머무는 동안에 이 땅에 주어지는 현실들을 제2, 제3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